

〈海東萬古歌〉의 필사시기와 교훈성에 대한 연구

정 한 기*

| | |
|---------------------|---------------------|
| 1. 서론 | 3-1. 素材 선택에 나타난 교훈성 |
| 2. 〈海東萬古歌〉의 필사시기 | 3-2. 素材 변경에 나타난 교훈성 |
| 3. 〈海東萬古歌〉에 나타난 교훈성 | 4. 결론 |

1. 서론

〈海東萬古歌〉는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역사를 읊은 詠史歌辭¹⁾이다. 68면 1책의 필사본으로 제1면은 표지이고 제2-3면, 제68면은 落書이며 본문은 제4면에서 제67면까지 총 64면이다. 每面은 2단의 귀글체이고 상단에 본문과 관련된 주석이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작품의 분량은 4음보 1행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012행이다. 이러한 방대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그 작자와 창작 년대는 미상이다.

역사를 읊은 가사 작품은 대부분 그 창작 시기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작품의 분량이 1000행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창작 시기를 늦추어 보는 근거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해동만고가〉는 그 분량이나 소재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에 창작된 작품으로 단정하기에는 국어학적인 측면에서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이 선행연구에서 제기되었다. 본고에서 〈해동만고가〉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해동만고가〉의 창작 시기가 17세기 이전이라면 조선전기는 100행 이내의 서정적인 가사가, 조선후기에는 비교적 장형의 서사적이고 교술적인 가사가 주로 창작되었다는 가사문학사의 일반적인 서술에 위배된다. 이러한 위배를 확대 해석하면 조선전기 가사가 서정적

* 필자 :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전임강사.

1) 역사를 소재로 하여 읊은 가사에 대한 명칭에는 詠史歌辭, 歷史歌辭 등이 있다. 권영철은 詠史歌辭라는 명칭을 사용한 바 있다. 최두식은 詠史文學이라는 항목에 한문작품과 국문작품으로 분류하였다. 역사를 한시로 읊은 작품을 詠史樂府, 詠史詩라고 한 점을 본다면 역사가사보다는 영사가사라는 명칭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權寧徹(1989), 『규방가사 각론』, 형설출판사; 최두식(1987), 『한국영사문학 연구』, 태학사.

인 측면이 강한 작품과 교술적인 측면이 강한 작품이 이원적으로 존재하였다는 가설도 제기될 수 있다. 창작시기에 대한 辨證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해동만고가〉의 창작시기는 한 작품의 작품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사문학사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해동만고가〉는 그 자료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동만고가〉는 그 동안 학계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해동만고가〉는 역사를 소재로 하였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보나 이를 통하여 교훈을 전달하는 교술적인 측면이 강하여 작품의 의미나 작자의 식을 파악하기 어렵고, 서정에 대한 모색을 주된 연구 과제로 하는 시가 연구에서는 주변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동만고가〉에 대한 연구로는 金文基(1978)가 유일하다. 김문기(1978)에서는 〈해동만고가〉의 창작시기와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이루어졌다. 특히 창작시기에 대하여 김문기는 음수율의 측면에서 2·4조가 많이 쓰였고, 표기법의 측면에서 초성에 ㅁ, ㅂ, ㅅ과 같은 된소리 표기가 많이 쓰였기 때문에 〈해동만고가〉는 조선전기의 가사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²⁾ 〈해동만고가〉의 창작시기를 국어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점은 탁월한 견해로 보인다. 왜냐하면 작품에 나타난 내용이나 작자의 역사 의식을 통한 접근은 연구자의 풍부한 국사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그 한계가 있고, 가사라는 장르가 역사서의 수준까지 역사의식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서 김문기(1978)에서 제시한 표기법이라는 기준을 전적으로 수용한다. 단지 김문기(1978)에서는 초성에 사용된 合用並書의 몇몇 예만 제시하였고, 초성에 사용된 合用並書만으로 창작시기를 판단하여 국어학에서 이룩한 연구 성과를 수용하지 못하였다. 또한 ‘창작시기’라고 하여 현존 자료를 창작 당시의 원본으로 보고 있으나, 현존 자료를 창작 당시의 원본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작자가 밝혀져야 하고, 창작과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현 자료의 상태에 중점을 둔다면 ‘필사시기’라는 것이 적당하다. 또한 〈해동만고가〉는 독자들에게 역사적인 정보나 교훈을 전달하는 작품으로 이러한 교훈성이 〈해동만고가〉가 지닌 문학적 의미로 보이는데 작품에 나타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차원에 그쳐 교훈성을 심도 있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국어학에서 이룩한 연구 성과를 수용하여 작품 전체에 나타난 合用並書 가운데 초성에 사용된 用례를 찾고 이러한 用례들이 지닌 국어학적 의미를 고찰하여 작품의 필사시기를 살펴보고, 작품에 나타난 교훈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김문기(1978), 「海東萬古歌에 대하여」, 『文脈』6집,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 13면.

2. 〈海東萬古歌〉의 필사시기

본 장에서는 초성에 사용된 합용병서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해동만고가〉의 필사시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해동만고가〉에서 초성에 사용된 합용병서의 예를 모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ㅂ(총 21회)

조사(1회) : 禮로 ㅂ 물니치니 19면

용언(20회) : 겁에 ㅂ고 함에 녀허 12면 / 똥의 알 ㅂ하두고 14면 / 怪由를 ㅂ듯던고 14면 / 裙腰로 ㅂ다말가 19면 / 山上의 ㅂ흔 나치 20면 / 竹葉이 ㅂ여시니 22면 / 蛇城을 ㅂ다말가 22면 / 竹葉이 ㅂ여시니 22면 / 冤氣을 ㅂ고리고 24면 / ㅂ랑동 ㅂ렁동은 25면 / 無心히 ㅂ여시랴 26면 / 仁義로 ㅂ하시니 29면 / 舊染을 ㅂ도고야 33면 / ㅂ호는 듯 직희는 듯 36면 / 뉘라셔 ㅂ듯던고 39면 / 作帝建의 ㅂ흔 慶曆 48면 / 康氏의게 ㅂ던 49면 / 一戎衣를 ㅂ 보리라 49면 / 눈을 ㅂ고 60면 / 陋風을 ㅂ서내고 65면

2) ㅃ(총 3회)

체언(1회) : ㅃ이 4면

용언(2회) : 南沃沮로 ㅃ쳐갈 20면 / 宋文述은 ㅃ쳐갈 36면

3) ㅅ(총 21회)

체언(6회) : ㅅ의 4면 / ㅅ을 9면 / 避 ㅅ ㅅ 엇다마는 18면 / ㅅ은 ㅅ로 18면 / ㅅ을 44면 / 曹敏修의 ㅅ라 말가 67면

조사(2회) : 武王 ㅅ 5면 / 父母 ㅅ 9면

용언(13회) : ㅅ근 갈을 11면 / 鮮明이 ㅅ거신들 13면 / 高句麗를 ㅅ지줄 제 14면 / 侍婢를 ㅅ며 내니 18면 / 春風으로 ㅅ러두고 18면 / 碧花를 ㅅ며내야 26면 / 거울을 ㅅ쳐내야 31면 / 消息이 ㅅ쳐시니 31면 / ㅅ ㅅ치니 32면 / 初頭銳氣를 鵬綠江에 ㅅ근 後에 36면 / 錦纜을 ㄷ니 ㅅ이 37면 / 三十里에 ㅅ을 ㅅ어 41면 / 禍心을 ㅅ러두고 53면

3) ㅆ(총 36회)

체언(20회) : ① ㅆ히 4면 / ㅆ흘 7면 / ㅆ흘 8면 / ㅆ흘 10면 / ㅆ흘 11면 / 險 ㅆ히 27면 / ㅆ히 30면 / ㅆ흘 30면 / ㅆ흘 34면 ② ㅆ이 8면 / 河伯의 ㅆ 9면 / ㅆ을 마자 11면 / ③ ㅆ을 먹어 12면 / ④ 西周의 ㅆ ㅆ로다 6면 / 漢昭帝 ㅆ 7면 / 이 ㅆ 23면 / ㅆ 줄 ㅆ에 55면 ⑤ 이 ㅆ을 33면 / 이 ㅆ ㅆ다 엇다마는 35면 / 人間의 ㅆ지 ㅆ시 46면.

부사(4회) : 謚法을 ㅆ긋초니 27면 / ㅆ 이실가 36면 / ㅆ나시니 44면 / ㅆ어디셔 45면 (4회)

용언(12회) : 東扶餘 ㅆ나 올 제 10면 / 뉘라셔 ㅆ을소니 10면 / ㅆ워시니 11면 / ㅆ와 11면 / 慕

容癘 胆이 썰녀 22면/ 粧匱을 썰러내야 34면/ 聖恩을 썰어세라 38면/ 八彩에 썰여시니 41면/ 麥穗를 썰더먹니 49면/ 天狗星이 썰러딜 제 57면/ 海上의 홀니 썰워 60면/ 뉘 아니 썰닐 소니 61면

4) 새(총 11회)

채언(3회) : 뷔소리 썩이로다 25면/ 平羽調 썩이로다 28면/ 녁은 썩은 55면.

용언(8회) : 都彌의 눈을 싸야 18면/ 쏘 이이 싸지거노 21면/ 童男을 널니 싸서 27면/ 龜兎說노 몸을 싸야 40면/ 水火의 싸진 백성 49면/ 風雲을 썩는 장수 49면/ 千乘을 싸야 널 제 49면/ 賊藪에 싸졌는 디 59면

위의 용례에서 합용병서가 사용된 횟수는 ㅅ 21회, ㅆ 3회, 시 21회, 새 36회, 새 11회 총 92회이다. 이러한 횟수는 된소리가 될 어휘에는 모두 합용병서가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본문에 각자병서가 사용된 예를 찾기 어렵고 위에 열거한 단어들의 쓰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합용병서의 音價가 된소리가 된 것이 언제인가 하는 점은 국어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³⁾ 즉 중세국어(15세기)에서 합용병서의 음가를 된소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동만고>에 합용병서가 92회나 사용되었고, 음가가 된소리라고 하여 필사시기를 15세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음가보다는 표기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는 것이 좀더 유용한 방법이 된다.

중세국어의 합용병서에는 ‘ㅅ’ 계(ㅅ, ㅆ, ㅅ, ㅅ), ‘시’ 계(시, 시, 새, 시), ‘ㅅ’ 계(ㅅ, ㅅ)가 있었다. ‘ㅅ’ 계(ㅅ, ㅅ)는 17세기 초에 소멸하고 ㅅ의 새로운 이형태로 ‘ㅅ’ 이 나타나고 ㅅ의 새로운 이형태로 ‘ㅅ’ 이 이 시기에 나타났다. 그리고, ‘시’ 과 ‘ㅅ’ 이 혼용되었고, ‘ㅅ’ 과 ‘ㅅ’ 이 혼용되었다. 이와 같이 동일한 된소리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표기로 쓰이는 경향은 17세기에 시작되었으나 18세기에 이르러 더욱 극심한 혼란을 보였다. 이러한 혼란에서 ‘시’ 의 된소리가 ‘된시옷’ 으로 통일되는 경향이 분명해 진 것은 19세기에 들어선 후이다.⁴⁾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해동만고>의 표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해동만고>에서 ‘시’ 의 된소리로 ‘ㅅ’ 이 쓰이고 있다. 이것은 19세기에 ‘ㅅ’ 으로 통일되어 가는 경향을 보아 19세기 이전의 표기임을 의미한다. 둘째, <해동만고>에서는 ‘ㅅ’ 과 ‘ㅅ’ 이 사용된 예가 없고, ‘ㅅ’ 의 된소리는 ‘시’ 으로 ‘시’ 의 된소리는 ‘ㅅ’ 으로 각각 하나로 표기된다. 이것은 17세기와 18세기 사이에 ‘ㅅ’ 의 된소리로 ‘시’ 과 ‘ㅅ’ 이, ‘시’ 의 된소리로 ‘ㅅ’ 과 ‘ㅅ’ 이 있었던 것과는 다르므로 17세기 이전에 필사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필사시기의 추정은 초성에 사용된 합용병서 가운데 17세기와

3) 박병채(1998), 『국어발달사』, 세영사, 145면.

4) 중세국어의 합용병서, 17-18세기의 합용병서, 19세기의 합용병서에 대한 서술은 이기문(1982), 『국어음운사연구』, 탑출판사, 61-63면과 안병희, 이광호 공저(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43-45면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8세기에 있었던 혼용표기만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좀더 많은 국어학적 기준들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이러한 방대한 작업을 모두 수행할 수는 없지만, 〈해동만고〉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인 의문문 표기와 分綴 표기를 기준으로 전술한 필사시기를 좀더 보완하고자 한다.

〈해동만고〉에 나타난 의문문에는 ‘-고’와 ‘-가’가 있는데 의문사가 쓰인 의문문에서는 ‘-고’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서는 ‘-가’가 쓰인 양상이 일관성을 보인다.⁵⁾ 주지하듯이 ‘-고’와 ‘-가’는 중세국어에서 의문문을 만들 때 체언과 결합하는 보조사의 역할을 하거

5) 다음은 〈해동만고〉의 의문문에서 ‘-가’와 ‘-고’가 쓰인 예를 제시한 것이다.

〈-가〉: ① ‘-가’: 畚의나 보앗던가 4면/ 臣業을 마자던가 5면/ 聖壽런가 歷年인가 5면 / 唐虞의 至治런가 6면/ 發岐의 自刎死는 所執이 잇듯던가 19면/ 私喜怒를 니를년가 19면/ 이 아니 大功인가 21면/ 이 아니 하늘인가 22면/ 碧海를 건널년가 24면/ 私恩이 업듯던가 24면/ 飢飽榮辱을 天地間의 니것던가 25면/ 太平心을 껴라던가 25면/ 古樂인가 今樂인가 28면/ 避世를 ㅎ라던가 29면/ 이 아니 丈夫런가 30면/ 玄德이 들녘던가 34면/ 國恩을 갑자던가 34면/ 乙支文德 아니신가 35면/ ㅎ 사람도 업듯던가 38면/ 衰運이 다닷던가 45면/ 죽인들 죽을년가 46면/ 天使가 업슬년가 66면. ② ‘-가’: 日光山의 다말가 4면/ 檀木下의 나다말가 5면/ 四郡이 되다말가 7면, 類利가 되다말가 10면, 國內城이 되다말가 13면/ 文獻이 업다말가 7면 무를로이 업다말가 9면/ 辰韓 짜홀 엇다말가 7면, 弃韓 짜홀 엇다말가 8면, 고은 闍氏 엇다말가 9면/ 朴赫居世 닛다말가 8면/ 嬪于處를 ㅎ다말가 12면/ 遼西를 치다말가 13면/ 天泉亭에 우다말가 26면/ 智證王이 定타말가 26면/ 金官城이 되다 말가 27면/ 浪城에 가듯 말가 27면/ 아들의게 傳타말가 30면/ 죽을 짜홀 엇다말가 30면/ 死後에 ㄷ다 말가 32면/ 新羅兵에 죽다 말가 33면 / 從汝所適 ㅎ다 말가 33면/ 爲王前驅 ㅎ다 말가 34면/ 이 밧긔 쯤 이실가 36면/ 사람의게 밋다말가 37면/ 遼東城을 막다 말가 39면/ 天褒를 ㄴ다 말가 39면/ 三日을 우다 말가 41면/ 이제야 ㅁ다 말가 42면 / 洛花岩이 되다 말가 42면/ 三日을 ㅂ다 말가 43면/ 新羅王이 되다 말가 44면/ 山水間의 ㄴ다 말가 46면/ 弓裔가 되다 말가 46면/ 甄萱이 나다 말가 47면/ 響應을 ㅎ다 말가 47면/ 魚肉이 되다 말가 48면/ 傳 ㅎ 곳이 ㄴ다 말가 48면/ 甄萱이 오다 말가 50면/ 第一이 되다 말가 51면/ 羽翼이 되다 말가 53면/ 經年을 ㅎ다 말가 54면/ 갈 곳이 업다 말가 55면/ 牙遺도 업다 말가 55면/ 絺君할 제 ㅁ다 말가 56면/ 賊藪가 되다 말가 57면/ 江을 건너 ㅎ타말가 59면/ 異姓의게 傳다 말가 65면/ 岐山이 되다 말가 65면.
 〈-고〉: ① ‘-고’: 어이하야 우뚝던고 9면, 自鷄는 어이하야 그 아리셔 우뚝던고 16면. / 蓋農는 어이하야 대랑을 아슬년고 18면/ 어드러로 조차난고 어이하야 잡아준고 20면. / ㄴ라셔 치뚝던고 21면/ 무스슬 ㅁ토논고 23면/ 新羅는 어이하야 불모를 일삼논고 23면/ 忠義는 ㄴ워 잇논고 騁辯을 ㄴ워 ㅎ년고 23면/ 어디가 들을손고 26면/ 內亂을 어일년고 26면/ 代行을 ㄴ워 ㅎ손고 31면/ 溫達이 어딴 간고 33면/ 武王은 어이하야 酣樂을 일삼던고 37면/ 新羅는 어이하야 美女를 들엇던고 37면/ ㄴ라셔 ㅂ힐손고 38면/ ㄴ라셔 ㅂ뚝던고 39면/ 하늘은 어이하야 女聖을 내얏난고 39면/ 命世良弼 ㄴ워 ㄴ런고 40면/ 義慈는 어이하야 天禍를 貪ㅎ논고 41면/ ㄴ워 어인 말이런고 45면/ 어딴 어딴 들엇논고 46면/ ㄴ라셔 바라던고 46면/ 景哀王은 무슨 경에 荒淫조차 ㅎ뚝던고 47면/ 두 王后 그 ㄴ워런고 53면/ 調護를 ㄴ워 ㅎ던고 54면/ ㄴ라셔 ㅁ을손고 54면/ 元宗은 무슨 말노 遜位를 ㅎ뚝던고 58면/ 逆天을 ㅎ뚝던가 59면/ 剿滅을 ㄴ워 ㅎ년고 60면/ 橘은 어이하야 ㅁ뚝던고 63면/ 不世功이 ㄴ워ㄴ런고 63면/ 어이하야 天心에 반갑던고 64면/ 三隱이 ㄴ워 ㄴ신고 65면/ 老將軍은 어이하야 逆天을 ㅎ뚝던고 66면. ② ‘-고’: 어드러로 가자말고 10면, 어드러로 가다말고 11면/ 어이하야 ㅈ줄손고 11면/ 쯤 어이하야 ㄷ러올고 24면/ 어이하야 慰勞 ㅎ고 25면/ 卒歲를 어이하야 ㅎ고 25면/ 微行은 어인일고 26면/ 名分을 어이하야 ㅎ고 27면/ ㄴ라셔 傳타 말고 27면/ 玉寶高는 어이하야 智異山에 ㄷ다 말고 28면/ 이 恩惠 어이하야 ㅎ고 31면/ 어드러로 가자 말고 31면/ 어드러로

나, 용언의 어미 역할을 한다. 이 때 可冑의 관정을 요구하는 의문문에서는 ‘가’가 쓰이고, 의문사가 있어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에서는 ‘고’가 쓰인다. 이러한 양상은 근대국어에서 없어졌으므로 중세국어임을 나타내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⁶⁾ 이러한 사실로 보면 〈해동만고가〉는 15세기에 필사된 것이다. 이러한 점은 앞에서 필사시기를 17세기 이전으로 추정된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다음으로 분철 표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 제시한 용례 가운데 “뫼의 4면 / 뫼을 9면 / 뫼을 11면 / 썩을 12면 / 뫼을 33면”이라는 단어에서 보듯 철저하게 분철 표기로 되어 있다. 安秉禧와 李珣鎬는 분철 표기는 16세기 후반에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17세기 이후에 뚜렷하다고 하였다.⁷⁾ 이러한 사실로 보면 〈해동만고가〉의 필사시기는 17세기 이후가 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해동만고가〉의 필사시기는 합용병서의 표기와 의문문의 표기에서는 17세기 이전이 되고, 분철 표기에서는 17세기 이후가 된다. 17세기 이전으로 단정하기에는 후대의 표기법이 나온다는 점에서 주저된다. 17세기 이후의 어느 시기에 필사된 것으로 보이는데 합용병서와 의문문의 표기가 17세기 이전의 표기법을 따른 점을 감안하면 17세기 초반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3. 〈海東萬古歌〉에 나타난 교훈성

〈海東萬古歌〉는 산수와 풍속의 아름다움을 서술한 다음 단군에서 고려말까지의 역사를 서술하는 순서로 전개되고, 단군에서 고려말까지의 역사가 작품 서술의 주를 차지하는 영사가사이다. 영사가사의 문학적 의미를 찾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역사적 정보를 전달하거나 그 정보를 통하여 독자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영사가사라는 일반적인 견해를 받아들여 ‘교훈성’이란 점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교훈성은 역사적 소재를 작자 나름의 시각으로 재구성하면서 드러낼 수 있다. 그 재구성은 소재를 변경하는 측면도 있지만, 소재를 선택하는 측면도看過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소재

나다말고 32면/ 가기는 무슴일고 38면/ 무슴 일을 ㅎ다 말고 38면/ 長平卒을 어이 ㅎ고 39면/ 뉘라서 傳타말고 42면/ 어이 ㅎ야 죽다 말고 44면/ 썩 어디셔 낫다 말고 45면/ 八關會난 무슴 일고 51면/ 어이 ㅎ야 神穴寺에 가다 말고 51면/ 어드로서 나다 말고 51면/ 뉘라서 ㅎ다말고 53면/ 左道난 무슴 일고 53면/ 뉘라서 剿討 ㅎ고 54면/ 淫樂은 무슴 일고 54면/ 어이 ㅎ야 치다말고 55면/ 무슴 일을 ㅎ다 말고 56면/ 선뫼기는 무슴 일고 61면/ 썩 알피는 무슴 탈고 61면/ 썩 가기는 무슴 일고 61면/ 어이 ㅎ야 가다 말고 61면/ 聯句는 무슴 景고 63면.

6) 안병희, 이광호 공저(1990), 앞의 책, 242면; 최동주(1996), 「중세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1』, 국립국어연구원, 169면; 이기문(1998), 『신정판 국어사개설』, 대학사, 210면.

7) 안병희, 이광호 공저(1990), 앞의 책, 45면.

선택'과 '소재 변개'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교훈성'을 찾고자 한다.

〈해동만고가〉의 소재는 단군에서 고려말까지의 역사적 사건들이다. 이러한 사건 가운데 삼국에서 고려까지의 역사가 본문의 2/3를 차지하므로⁸⁾ 본고에서 다룰 주된 소재는 삼국에서 고려말까지의 역사적 사건이 된다.

3-1. 素材 선택에 나타난 교훈성

본 절에서는 『삼국사기』·『삼국유사』·『고려사』와의 대비를 통하여 소재 선택의 측면에서 〈해동만고가〉에 나타난 교훈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역사적인 소재에 대한 선택은 『삼국사기』·『삼국유사』와의 대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고, 고려시대의 역사적인 소재에 대한 선택은 『고려사』와의 대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역사에서 〈해동만고가〉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가운데 어느 역사서의 서술을 따르고 있는 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점은 선택된 소재의 동일성 여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동만고가〉의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와 관련된 소재는 모두 38개이다. 이 가운데 『삼국사기』에만 있는 소재가 31개⁹⁾이고, 『삼국유사』에만 있는 소재가 1개,¹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모두 있는 소재가 5개,¹¹⁾ 근원 미상의 소재가 1개¹²⁾이다. 선택된 소재들이 『삼국사기』에서 취한 것이 월등히 많으므로 〈해동만고가〉는 『삼국사기』의 서술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서술내용에서도 확인

8) 각 왕조별로 4음보 1행을 기준으로 서술된 분량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국의 산수와 풍속(4면 14행), 단군조선(5면 8행), 기자조선(5-6면 15행), 위만조선(6-7면 5행), 한사군과 이부(7면 4행), 삼한(7면 9행), 삼국(7-44면 580행), 통일신라(44-48면 64행), 고려(48-67면 308행).

9) 『삼국사기』 본기에 있는 소재(21개) : 백제 溫祚王(11면), 고구려 瑠璃王(13면), 백제 마한을 복속시킴(14면), 고구려 大武神王(14-15면), 고구려 太祖王(17-18면), 고구려 山上王(18-20면), 고구려 東川王(20-21면), 고구려 烽上王(22면), 신라 炤智王(射琴匣, 遠色 26면), 신라의 興起(智證王의 지명 왕명 등의 한문화, 화랑도, 우산국의 정복, 가락국의 정복 26-27면), 백제 武王의 방당(37면), 신라가 두 미녀를 당에 보내나 당태종이 받지 않음(37-38면), 고구려 蓋蘇文(38-39), 신라 善德女王과 眞德女王(선덕여왕의 知幾三事, 진덕여왕의 讚唐詩 39-40면), 金春秋와 金庾信(40-41면), 백제의 멸망(義慈王의 방당, 蘇定方의 신이함, 의자왕의 최후 41-43면), 고구려의 멸망(43-44면), 통일신라 太宗(44면), 통일신라 神武王의 撥亂反正, 통일신라 憲康王대의 망조(차용과 四神人 45면), 통일신라 眞聖女王대의 혼란(45-46면), 신라의 멸망과 王建의 후삼국통일(47-51면). 『삼국사기』 열전에 있는 소재(10개) : 백제 都彌의 처(18면), 신라 勿稽子(21면), 신라 朴堤上(23-24면), 신라 百結先生(25면), 于勒의 가야금과 玉寶高(27-28면), 居柒夫와 현사의 귀속(28-29면), 신라의 忠義로운 인물(奚論, 訥催, 薛氏女, 金后稷 30-32면), 고구려의 忠義로운 인물(溫達, 乙支文德 33-36면), 弓裔(46-47면), 甄萱(47-48면).

10) 가야 首露王(15면).

11) 신라 朴赫居世(8면), 고구려 朱蒙과 類利(8-11면), 신라 昔脫解(11-13면), 신라 金闕智(16-17면), 신라 味鄒王과 竹葉軍(21-22면).

12) 신라 印觀과 罽調(22-23면).

할 수 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동시에 있는 소재는 5개이다. 이 5개의 소재를 『삼국사기』 『삼국유사』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라 朴赫居世

『삼국사기』 : ① 탄생, ② 박씨라는 성과 이름을 얻게된 내력, ③ 알영의 탄생과 그녀와의 결혼, ④ 박혁거세의 치적

『삼국유사』 : ①-③의 내용이 있음, ④ 생략된 부분이 많아 소략함

〈해동만고가〉 : ①-③의 내용이 있음, ④ 상세함. ④를 기준으로 = 『삼국사기』와 일치

고구려 朱蒙과 類利

『삼국사기』 : ① 阿蘭佛의 꿈과 동부여로 쫓겨난 解扶婁, ② 해부루가 金蛙王을 얻음, ③ 주몽 신화, ④ 유리의 부친 찾기

『삼국유사』 : ③주몽 신화

〈해동만고가〉 : ① 아란불의 꿈, ③ 주몽 신화, ④ 유리의 부친 찾기 = 『삼국사기』와 모두 일치

신라 석탈해

『삼국사기』 : ① 노파의 보옥과 글을 익힘 ② 사내아이의 내력 ③ 남해왕의 사위가 됨 ④ 니금 시험

『삼국유사』 : ① 탈해의 배가 가락국에 닿으려 하다가 신라의 아진포로 떠남, ② 노구가 그 배에서 사내아이를 얻음 ③ 사내아이의 내력 ④ 사내아이는 피로 호공의 집을 가로챈.

〈해동만고가〉 : 『삼국유사』의 ①만 일치. 『삼국사기』의 ③④에서 일치 =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소재를 혼용하였으나, 『삼국사기』가 우세.

신라 김알지

『삼국사기』 : ① 김알지를 얻는 과정, ② 김씨로 성을 삼고 알지로 이름을 삼은 내력

『삼국유사』 : ① 김알지를 얻는 과정, ② 김씨로 성을 삼고 알지로 이름을 삼은 내력

〈해동만고가〉 : ① 김알지를 얻는 과정, ② 김씨로 성을 삼고 알지로 이름을 삼은 내력

신라 味鄒王과 竹葉軍

『삼국사기』 『삼국유사』 〈해동만고가〉 일치

다섯 개의 소재 가운데 4개가 『삼국사기』에만 있는 내용을 〈해동만고가〉가 수용하고 있다.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라 김알지의 경우 전체적인 내용은 세 기록이 일치한다. 세부 내용에서 김알지가 탈해에 의하여 태자로 책봉되었으나, 파사왕에게 양위한다는 것은 『삼국유사』에만 있고, 김알지에서 이르러 始林을 鷄林으로 고치게 되었다는 것은 『삼국사기』에만 있다. 〈해동만고가〉는 『삼국사기』의 세부 내용과 일치한다. 〈해동만고가〉에 있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대한 소재들은 선택한 소재의 수와 소재

의 내용에서 『삼국유사』의 서술보다 『삼국사기』의 서술과 일치하므로 본고에서 소재 선택이나 소재 번개는 『삼국사기』와의 대비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해동만고〉에 선택된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한 역사적인 소재는 다음과 같다.

고구려

- 1) 朱蒙과 類利(8-11면), 瑠璃王(13면), 大武神王(14-15면), 太祖王의 아우 遂成(17-18면), 山上王(18-20면), 東川王(20-21면), 烽上王(22면)
- 2) 溫達과 乙支文德(33-36면), 蓋蘇文(38-39면), 고구려의 멸망(43-44면)

백제

- 1) 溫祚王(11면), 백제 마한을 복속시킴(14면), 蓋婁王과 都彌의 처(18면), 武王(37면), 백제의 멸망(41-43면)

신라

- 1) 朴赫居世(8면), 昔脫解(11-13면), 金闕智(16-17면), 味鄒王과 竹葉軍(21-22면), 炤智王(26면), 善德女王·眞德女王(39-40면)과 金庾信·金春秋(40-41면), 太宗의 삼국통일(44면). 통일신라 神武王(45대), 憲康王(49대), 眞聖女王(51대)과 혼란상(弓裔, 견훤), 왕건의 고려건국
- 2) 勿稽子(21면), 朴堧上(23-24면), 奚論·訥催·金后稷(30-32면)
- 3) 印觀과 罽調(22-23면), 百結先生(25면), 신라의 興起(智證王의 지명 왕명 등의 한문화, 국호제정, 화랑도, 우산국 정복, 于勒의 가야금과 玉寶高 26-27면), 居柒夫와 賢士의 귀속(28-29면), 薛氏女(31면)

1)은 왕에 대한 것이고, 2)는 신화에 대한 것이며 3)은 예능인, 서민, 문물 등 1)과 2)에 포함시킬 수 없는 소재들이다. 3)의 소재에 대한 내용은 주로 백성들의 義로운 생활¹³⁾· 평민 여인의 節義 등과 같이 신라 민속의 어진 풍속¹⁴⁾에 대한 것이나 음악과 악기의 전승·국토의 확장과 한자화·賢士들의 신라로의 귀속 등과 같이 신라 국력의 興起에 대한 것이므로 '교혼성'과는 관련이 적다. 따라서 1) 2)를 중심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서로 살펴볼 것이다.

고구려왕에 대한 소재 가운데 朱蒙에 대한 것은 신화이므로 논의에서 제외한다. 瑠璃王에 대한 내용은 王莽의 침입으로 고구려가 下句麗로 폄하되는 굴욕을 당한 것, 國內城으로의 천도, 아들 鮮明을 죽게 한 것 등이다. 특히 瑠璃王이 아들 鮮明을 죽게 한 것에 대하여

13) 印觀과 罽調는 일반 백성이다. 罽調는 시장에서 印觀에게서 실을 샀는데 지나가던 술개가 그것을 물어 印觀에게 떨어뜨렸다. 印觀은 서조에게 실을 돌려주자 서조는 한 번 산 것이라며 받지 않았다. 印觀이 이에 돈으로 돌려주었으나, 이것도 받지 않았다. 서로 돈과 물건을 이루는 실정이다. 장시관이 이 사실을 왕에게 고하자 왕은 이들에게 상을 내린다.

14) “新羅 仁風이 市里를 증가시니”(22면).

不仁함을 비판하고 있다. 瑠璃王은 그의 아들인 태자 鮮明이 이웃 나라의 黃龍王이 보낸 귀한 보물인 強弓을 꺾어 버리자 그에게 칼을 보내어 자결하게 한다. <해동만고가>에서는 유리왕의 행위에 대하여 “義教를 못하야니 止慈情을 알니려냐”(13면)라고 하였다. 유리왕이 義로서 자식을 가르치지 않고 나중에 자식의 악한 행위를 벌하여 죽인 것을 비판하고 있다. 大武神王에 대한 내용은 어릴 때 이름이 無恤이었고 부여의 사신을 꾸짖는 용기가 있었던 것, 즉위 후 부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부여왕 帶素를 죽인 것, 遼東 태수의 침입을 막아 낸 것, 호동왕자에 대한 것 등이다. 대무신왕에 대하여 작자는 부여와 낙랑을 통합하였고 어릴 때 부여의 사신을 꾸짖을 정도로 용기가 있었던 것 등에서는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한편, 부여왕 대소를 죽인 것과 호동왕자를 죽인 것 등에서는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호동왕자는 대무신왕의 후비 소생이다. 호동왕자는 빼어난 외모와 재주가 있으며 낙랑을 정벌한 공이 있다. 대무신왕은 이러한 호동왕자를 친애하는데 元妃가 이를 시기하여 왕에게 참소한다. 왕은 처음에는 참소를 믿지 않다가 결국 죄를 주려고 한다. 그러자 호동왕자는 자결한다. <해동만고가>에서는 호동왕자에 대하여 “어엿불샤 好童이여 너는 어이 죽었니/ 容貌도 奇特하고 大功도 있다마는/ 猜忌하는 어피허물 붉히기 어려워라/ 晋文公이 도타마는 申生을 비홀주리”(15면)라고 하여 대무신왕이 자식을 죽인 不仁함에 초점을 두고 있다. 太祖王의 아우 濂成에 대한 내용은 그가 형의 왕위를 이어받은 다음 조카들과 충신을 죽인 것이다. 太祖王은 아우인 濂成이 많은 공을 세우자 왕위를 그에게 물려주려고 마음을 먹는다. 아우 수성은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심을 품는다. 이를 눈치챈 穆度婁는 병을 핑계로 벼슬을 사임하고 수성의 아우인 伯固는 그의 음모를 반대한다. 한편 충신 高福章은 뒤늦게 수성의 음모를 알고 태조에게 고하지만 태조는 결국 수성에게 전위하고 자신은 별궁으로 물러난다. 수성은 왕위에 오르자 고복장과 조카인 막근, 막덕을 죽인다.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해동만고가>에서는 “사랑하던 두아달을 모진 범의 손에 녀코/ 大位를 놀을 주고 別宮으로 물너난고/ 忠言하던 넷 臣下를 살라보기 쉬울손가”(17면)라고 하였으므로 왕위를 찬탈한 수성이나 음모를 늦게 눈치챈 고복장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태조의 잘못된 왕위계승에 초점을 두고 있다. 山上王에 대한 내용 역시 왕위 계승에 대한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상왕은 국천왕의 둘째 동생이다. 국천왕이 죽자 왕비인 于氏는 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첫째 동생인 發岐에게 찾아가서 왕위를 계승하라고 제의한다. 발기가 그 제의를 거절하자 둘째 동생인 延優에게 찾아가서 같은 제의를 한다. 연우는 우씨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우씨와 은밀한 관계를 맺는다. 발기는 군사를 동원하여 궁궐을 포위하지만 乙巴素를 비롯한 대신들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다. 이에 발기는 요동으로 가서 군사를 빌려 연우를 징벌하려 하지만, 셋째 동생인 瀾瀨가 발기의 군대를 맞아 대적하자 자결한다. 작자는 발기의 행위를 義라고 한¹⁵⁾ 점을 보아 山上王의 왕위계승이 義를 벗어난 것에 초점을 둘 수 있다. 烽上王에 대한 내용은 그가 숙부인 安國君과 동생인 咄圖를 죽이

고 왕위에 올랐는데 참다 못한 신하 倉助里가 烽上王을 죽이고 그의 조카인 美川王을 맞아 들인다는 것이다. 작자가 瑠璃王, 大武神王, 太祖王의 아우 遂成, 山上王, 烽上王이라는 소재를 선택한 것이 왕의 不仁과 왕위계승의 不義를 비판함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백제의 왕에 대한 소재는 소략한 편이다. 그 가운데 溫祚王과 백제가 마한을 服屬시킨 일은 역사적인 사건을 짧게 소개한 정도여서 素材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다. 蓋婁王에 대한 내용은 都彌 처의 정절을 뺏으려고 했던 淫蕩함이다. 武王에 대한 내용도 사치와 방탕으로 국고를 낭비함이다.

다음으로 고구려의 신하에 대한 것이다. 溫達에 대한 내용은 『삼국사기』와 그 내용이 조금 다르므로 ‘소재의 변개’에서 다루기로 하고, 乙支文德의 경우는 뚜렷한 교훈성을 찾기 어려워 蓋蘇文에 대한 내용만 살펴보기로 한다. 고구려의 蓋蘇文에 대한 내용은 君主인 榮留王을 弑害한 것이다. 〈해동만고가〉에서는 이 일에 대하여 “兇拳 毒手에 倫綱이 문혀지니”(38면)라고 하였다. 倫綱을 어긴 개소문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고구려와 백제의 왕에 대한 소재는 왕의 성품에서는 不仁, 放蕩을 기준으로 왕위계승에서는 不義를 기준으로 선택되었다. 신하에 대한 소재는 군주를 시해한 倫綱의 어김을 기준으로 선택되었다.

신라왕에 대한 소재에서 석탈해와 김알지는 신화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한다. 味鄒王에 대한 내용은 미추왕이 죽어 그 혼령이 죽엽군이 되어 백성을 돕는다는 것이다. 炤智王에 대한 내용은 謝琴匣과 색을 멀리한다는 것 등이다. 謝琴匣에 대하여 〈해동만고가〉에서는 “가마괴 아니런들 內亂을 어일닌고”(26면)라고 하였다. 분수승과 궁주의 음모를 신이한 도움으로 물리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소지왕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소지왕이 微行하다가 어느 마을에서 村老가 자신의 여식을 그에게 바친다. 왕은 백성의 여식과 상관할 수 없다고 거절하지만 궁궐에 돌아온 다음 그 여식이 생각나서 자주 미행을 가 그녀와 상관한다. 어느 날 궁궐로 돌아오는 길에 어떤 노인이 용이 고기의 탈을 썼으니 어부들에게 잡히는 꼴이라고 왕을 비난한다. 이것은 왕의 신분으로 몰래 상관하는 것을 비난한 것이다. 이후 왕은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여인을 궁궐로 데려온다. 왕이 여색을 가까이 하지만 음탕으로 떨어지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는 현명함을 보이고 있다. 善德女王·眞德女王에 대한 내용은 여왕의 현명함에 대한 것이다. 金春秋에 대한 내용은 김춘추가 고구려와 당에 가서 병사를 요청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두 여왕에게 충성을 다한 것, 진덕여왕 사후에 알천이 왕위계승을 사양하고 김춘추에게 양위한 것 등이다. 〈해동만고가〉에서는 이러한 왕위계승을 “曆數가 갈디이서 金春秋를 내야시니”(40면)라고 하였다. 김춘추는 신하의 임무를 충실히 하다가 天命에 의하여 왕위를 계승한 것으로 義에 의한

15) 작자는 于氏의 제의를 거절한 발기에 대하여 “發岐난 義를 잡고 禮로서 물니치니”(19면)라고 하였고 발기가 연우가 있는 궁궐을 포위한 행위에 대하여 “名實이 嚴正하니”(19면)라고 하였고, 발기의 죽음을 “大義를 못 펴시니 千載의 遺恨이라”(19면)라고 하였다.

것이다. 神武王에 대한 내용은 이전의 혼란스러운 왕위계승을 바로 잡은 撥亂反正의 공이 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장보고와 김양이 크게 공을 세웠으나 김양만을 등용하고 장보고와의 약속을 저버려 신의가 없는 왕이라는 것 등이다. 憲康王에 대한 내용은 四神들이 왕의 앞에 나타나 국가가 곧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왕은 그것도 모르고 음탕한 일만 하여 지방에 도적들이 발호하고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백성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다. 신라의 왕들은 현명함, 신이한 도움, 의로운 왕위계승을 내용으로 하는 소재들이 선택되었고, 통일신라의 왕들은 불신, 음탕을 내용으로 하는 소재들이 선택되었다.

다음은 신라의 신하에 대한 것이다. 勿稽子에 대한 내용은 공을 세우고도 두 번씩이나 공을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不忠함을 책하여 은둔한 것이다. 朴堧上에 대한 내용은 눌지왕을 위하여 卜好와 未斯欣을 구출하고 자신은 목숨을 버린 것이다. 奚論은 그의 부친이 가잠성 전투에서 백제군에게 죽었는데 자신은 신라가 다시 가잠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군사를 내었을 때 단검을 쥐고 적진으로 뛰어 들어 장렬하게 전사한 것이다. 訥僮에 대한 내용은 그가 진평왕 때에 봉잡성의 성주로 있었는데 백제군이 침입하였을 때 구원 오기로 약속하였던 신라군들이 오지 않음에도 원망하지 않고 성을 지키다가 병사들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였다는 것이다. 金后稷에 대한 내용은 진평왕 때에 사냥을 일삼는 왕을 깨우치기 위하여 죽어 왕이 다니는 길에 혼령으로 나타나 忠諫한 것이다. 신라의 신하는 원망할 처지에 있더라도 국가나 왕에게 원망하지 않고 왕을 위하여 죽은 것, 왕을 위하여 죽음으로 충간한 것 등 주로 개인적인 욕심은 버리고 끝까지 충절을 지킨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재들이 선택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고구려·백제 | : 淫蕩과 不仁(왕의 성품), 不義(왕위계승) | 倫綱(신하) |
| 신라 | : 賢明과 仁慈(왕의 성품), 天命(왕위계승) | 忠節(신하) |

고려의 경우도 위와 유사한 기준으로 소재들이 선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해동만고〉에 나타난 고려시대의 역사적 소재들이다.

高麗

1) 穆宗(51-52년), 仁宗(52-54년), 毅宗(54-58년), 元宗(58-60년), 忠烈王과 忠宣王(60-62년), 忠肅王(62년), 忠惠王(62-63년), 恭愍王(63-65년), 禔王(65년), 이성계의 조선 건국(65-67년)

고려시대의 소재들은 왕위계승과 관련된 것들이 주를 이룬다.

穆宗에 대한 내용은 金致陽과 王后 皇甫氏의 음모, 康兆의 난, 거란의 침입 등이다. 皇甫氏는 金致陽과 간통하여 아들을 낳았고 이 아들에게 왕위를 이어 받게 하려 한다. 그래서 그녀는 大良君 순을 위협하여 승려가 되게 한다. 穆宗은 병이 들어 長春苑에 은거하였는데

그 곳에서 蔡忠順 등과 의논하여 대량군 순에게 사위할 것을 결정한다. 대량군 순을 데려오게 하는 한편 서북면 순검사로 있던 康兆에게 대량군 순을 보호하게 한다. 강조는 부하에게 속아 목종이 폐위되고 김치양 일파가 집권한 줄 안다. 그는 撥亂反正을 하기 위하여 대군을 모아 개성으로 오다가 목종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 어쩔 수 없이 목종을 폐위시키고 대량군 순(현종)을 세운다. 거란이 이것을 빌미로 침입하는데 강조는 거란군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잡혀가고 강참찬에 의하여 가까스로 난이 수습된다. 〈해동만고가〉에서는 김치양 음모, 강조의 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강조가 속임수에 빠져 어쩔 수 없이 반역하게 된 과정은 생략되고 “大軍을 밋비 모라 弑逆이 되었는고” (51면)라고 하여 弑逆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거란이 침입하였을 때 강조가 현종을 보호하지 않아 현종이 호종하는 사람도 없이 남쪽으로 피신한 것을 “以賊遺君 ㅎ다말가” (51면)라고 비판하고 있다.

仁宗에 대한 내용은 李資謙의 전횡과 妙淸의 난 등이다. 李資謙은 睿宗에게 둘째 딸을 왕비로 주었고, 仁宗에게는 셋째와 넷째 딸을 왕비로 주었다. 외척으로 어린 仁宗을 대신하여 자신의 私家에서 국정을 전횡하였다. 인종 4년(1126년) 김찬, 지록연 등이 이자겸을 처단하려 하자 이자겸은 이들과 대결하여 궁궐을 불태우고 인종을 위협하여 사가로 데려온다. 그리고, 十八子圖讖을 믿고 찬위하려는 생각을 가진다. 인종은 이자겸의 부하였던 척준경을 시켜 이자겸을 제거한다. 〈해동만고가〉 본문은 이 과정을 소개한 다음 “撥亂反正을 ㄴ이라서 ㅎ라말고/ 忠義로 激動ㅎ야 羽翼을 ㄴ너내니/ 助惡도 俊京이오 討逆도 俊京이라/ 諸李 凶孽이 首領이 남아시니/ 懲討가 이리커니 亂賊이 두릴소나/ 主弱臣強은 禍源이 ㅂ혀세라” (52면)라고 하였다. 撥亂反正할 신하가 척준경밖에 없으나, 척준경 역시 이자겸을 도왔던 불의한 신하로 정토의 과정이 의롭지 못하므로 불의한 신하들이 두려움 없이 횡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비판한 것이다. 묘청의 난에 대하여 〈해동만고가〉에서는 “悔禍는 마쟸던가 左道는 무슴일고” (52면)라고 하여 이자겸의 전횡으로 왕권이 약화되고 국정이 紊亂하자 묘청의 난이 일어났다고 하였다. 〈해동만고가〉에서 이자겸은 왕을 감금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였던 倫綱을 어긴 신하이다.

毅宗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종은 둘째 아들을 사랑하여 의종의 태자 위를 폐하려 하였는데 당시 태자의 侍讀이었던 鄭襲明이 태자를 옹호하여 의종은 왕위에 오르게 된다. 왕위에 오른 의종은 鄭襲明의 충간을 싫어하여 사가로 내친다. 정습명은 사가로 물러나 자결한다. 이후 의종의 주위에는 간신들이 몰려들고 방탕한 놀이만을 일삼는다. 이러한 놀이로 무신의 불만이 가중되어 정중부 등의 무신의 난이 일어나고 의종은 李義旼의 손에 죽는다. 〈해동만고가〉에서는 “君臣을 ㅂ별하고 廢立을 從心홀 제/ 人君은 수공ㅎ고 ㅎ을일 전혀 업다” (55면)라고 하였다. 〈해동만고가〉에서는 의종의 방탕함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신하들이 왕위를 마음대로 하는 상황에 비판의 초점을 두고 있다. 元宗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씨 무신정권의 崔誼를 金俊이 죽이고 집권하고 林衍은 金준을 죽이고 집권한다. 임

연은 원종을 폐위시키고 安慶公 창을 세운다. 이때 원나라에 있던 원종의 태자가 귀국하던 도중 임연의 변을 듣고 원나라에 알린다. 원나라 조정이 임연을 힐책하자 임연은 원종을 복위시킨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몽고의 장군 홍다구 등이 서경에 주둔하여 국토를 잃게 되고 원나라의 잦은 침입을 받게 된다.

忠烈王과 忠宣王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렬왕이 왕위에 올라 왕위계승이 직통으로 이루어져 일시적으로 국가가 안정된다. 충렬왕의 태자(후에 충선왕)는 원나라에서 계국대장공주와 결혼하여 부왕에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게 된다. 충렬왕은 사위하여 충선왕이 보위에 오른다. 충선왕의 비인 계국대장공주는 질투가 심하여 충선왕을 원나라에 참소하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 원 조정은 충선왕을 폐위시키고 충렬왕을 다시 세운다. 이러한 왕위계승에 대하여 <해동만고>에서는 “群王이 어이 하야父子를 離間던고/ 前王이 新王되고 新王이 前王되니/ 네 님군 내님군에 신하를 갈나두고/ 산님군의 天作配를 改嫁를 請히더냐/ 瑞興侯의 오은 服飾 선뵈기도 무슴일고/ 宋邦英을 버힐 적의 禍根이 남을소냐”(60면)라고 하였다. 왕위계승에서 신하들이 충렬왕과 충선왕을 이간하여 왕위계승의 혼란을 야기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충선왕이 폐위되고 충렬왕이 복위되었을 때 宋邦英, 송린 등은 충선왕의 귀국을 저지하기 위하여 원나라 조정에 奏請하였고, 오기 등은 충선왕을 폐위시키기 위하여 충선왕의 든든한 배후였던 충선왕의 비인 계국대장공주를 瑞興侯에게 시집보내려는 음모를 꾸미기도 하였다. 1308년 충렬왕이 즉자 충선왕이 복위된다. 충선왕은 재위하자 충렬왕에게 받쳤던 淑昌宮 金氏를 취하기도 하고 1313년 잠시 귀국하였을 뿐 원나라에 계속 머문다. 국내와 원나라에서 귀국을 종용하자 그는 嗣位하거나 토변에 귀양을 갈 정도로 완강하게 버틴다. <해동만고>에서는 이러한 충선왕의 행적에 대하여 “燕京이 도타흔들 쏘가기는 무슴일고/ 吐瀋 二萬里에 어이 하야 가다말고”(61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해동만고>에서는 충선왕에 대한 내용은 신하들에 의한 왕위의 폐립에 대한 비판, 충선왕의 원 체류에 대한 비판이 중심이다.

忠肅王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선왕은 폐위되어 원나라에서 체류할 때 瀋陽王에 봉해지는데 그 후 왕고에게 심양왕의 작위를 嗣位한다. 왕고와 충숙왕의 왕위계승에 대하여 <해동만고>에서는 “瀋陽王은 그 뒤완디 王太子를 삼아두고/ 羣小를 締結하야 寶位를 覬覦하니/ 蔡河中은 謀主되고 權漢功은 舍勢홀 제/ 讒言도 되지 업다 賣國도 심홀시고”(62장)라고 하였다. 심양왕 왕고의 심복인 蔡河中 등은 원나라의 황제가 충숙왕을 폐위시키고 심양왕 왕고를 국왕으로 삼는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한편 원나라 조정에 충숙왕을 讒訴한다. 1321년 원나라 조정은 충숙왕의 옥새를 빼앗는데 權漢公 등이 왕고의 편에 가담한다. 왕고와 왕고의 심복들은 원나라 조정에 고려를 없애고 원나라가 직접 통치할 것을 간청하기도 한다. 이후 옥새를 다시 돌려받고 1324년 충숙왕은 귀국한다. <해동만고>에서는 왕고는 생략되어 있음에 비하여 채하중, 권한공 등이 부각되어 있다.

忠惠王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숙왕은 1330년 어린 충혜왕에게 嗣位한다. 충혜왕은 16세가 되자 음란하고 방탕한 행위를 한다. 1322년 원나라 조정은 충혜왕을 폐위시키고 충숙왕을 복위시킨다. 1339년 충숙왕이 죽자 충혜왕이 복위된다. 복위된 후 충혜왕은 음란하고 방탕한 행위를 하다가 원나라에 잡혀가서 죽는다. 〈해동만고가〉에서는 ① 복위된 충혜왕이 慶華公主를 범한 사실 ② 충혜왕이 원나라에 죽은 사실을 중점 다루고 있다. 충혜왕은 부친인 충숙왕의 계비였던 경화공주를 강제로 겁탈하고, 이러한 음행을 빌미로 원나라 조정은 충혜왕을 잡아간다. 〈해동만고가〉에서는 “穢惡이 滋甚하니 懲畏홀더 업돏던지/ 高龍普는 誘引호고 別失哥난 蹴傳홀 제/ 帝命으로 잡아가니 天鑑이 嬴다마는/ 村姑의게 술을 먹고 肅川에가 니불빌 제/ 困迫도 甚홀시고 景色이 慘憺하다/ 揭陽道 三萬리에 橘은 어이 먹돏던고” (63면)라고 하였다. 충혜왕은 끌려가면서 원나라 신하에게 발로 차이기도 하고 고통을 겪다가 결국 촌부가 주는 꿀을 얻어먹다가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이는 충혜왕의 방탕함 때문이라는 것이다.

恭愍王에 대한 내용은 ① 趙日新, 金鏞, 신돈과 같은 간신의 등장 ② 子弟衛 설치 등이다. 공민왕은 親元派인 姜允成 등을 제거하였으나, 趙日新을 총애하였고, 흥건적의 침입에 공을 세웠던 鄭世雲 金得培와 같은 인물들을 참소하여 죽게한 金鏞을 총애한다. 이후 공민왕은 요승 辛旽을 총애하고 신돈의 집에서 呂氏에게서 얻은 우왕에게 전위하려 한다. 신돈이 죽자 공민왕은 미소년을 뽑아 子弟衛를 설치하여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자제위 소년들로 하여금 4명의 비와 강제로 간음하게 하여 자식을 얻으려 한다. 자식을 얻은 다음 자제위 소년들을 죽이려 하는데 이것을 눈치챈 미소년들이 공민왕을 죽인다. 〈해동만고가〉는 공민왕이 간신을 가까이한 왕, 방탕한 생활을 한 왕이라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
|---------|--------------------------|
| 穆宗 | 金致陽(전횡), 康兆(목종을 廢位시킴) |
| 仁宗 | 李資謙(篡位の 음모) |
| 毅宗 | 武臣과 李義旼(의종을 弑害함) |
| 元宗 | 林衍(원종을 폐위시킴) |
| 忠宣王(방탕) | 두 파의 신하들(왕위의 廢立) |
| 忠肅王 | 蔡河中, 權漢公(충숙왕을 폐위시키려는 음모) |
| 忠惠王(방탕) | |
| 恭愍王(방탕) | 간신의 등장 |

〈해동만고가〉에 나타난 고려에 대한 소재는 왕과 왕위계승이 중심 내용이다. 특히 왕위계승의 경우 왕과 신하와의 관계를 중점 다루고 있다. 신하들은 왕을 폐위시키거나, 왕위를 찬탈하거나, 왕을 시해하는 행위를 한다. 이러한 행위는 倫綱을 어긴 것이다. 왕의 경우 주로 그 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행위가 드러날 경우는 방탕한 생활이 중심 내용

이다. 이것을 보면 〈해동만고가〉에서 선택한 소재들은 왕의 경우 淫蕩, 신하의 경우 倫綱을 교훈으로 한다.

삼국시대에서 고려말까지 역사에서 〈해동만고가〉에 선택된 소재들은 왕의 도리, 왕위 계승, 신하의 도리라는 세 가지 항목이 중심이다. 이 가운데 왕의 도리는 賢明(淫蕩) 仁慈(不仁)를 왕위계승은 天命(不義)을 신하의 도리는 倫綱을 교훈으로 한다.

3-2. 素材 변개에 나타난 교훈성

〈해동만고가〉는 소재 선택뿐만 아니라 선택된 소재의 변개 부분에서도 교훈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소재 변개는 왕위계승이 중심인 고려시대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왕의 행적, 왕위계승, 신하의 행적이 풍부하게 서술된 삼국과 통일신라시대에서는 비교적 잘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본 절에서는 삼국과 통일신라시대의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한다. 『삼국사기』와 비교하여 그 변개된 양상을 서술순서, 생략에 의한 변개, 첨가에 의한 변개, 서술방식 등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국사기』의 서술순서가 〈해동만고가〉에 바뀐 경우가 있다. 이런 예는 고구려 山上王과 東川王에 대한 기록에 보인다. 〈해동만고가〉에서 산상왕에 대한 기록과 동천왕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산상왕〉

- ① 국천왕이 충신 을파소를 얻었으나 왕위를 계승할 국본이 없다.
- ② 국천왕이 죽자 왕비 우씨가 발기와 연우를 찾아가서 모종의 제의를 한다. 발기는 그 제의를 거절하고 연우는 받아 들여 왕위에 오른다. 이가 산상왕이다.
- ③ 발기는 병사를 내어 산상왕을 징계하려 하였으나 실패한다.
- ④ 우씨는 죽을 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죽어 산상왕의 陵에 묻힌다.
- ⑤ 국천왕의 혼령이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의 묻힌 것이 분하여 산상왕의 혼령과 싸우게 되는데 동천왕이 이것을 부끄러워하여 국천왕의 왕릉을 일곱 겹의 소나무로 막게 한다.

〈동천왕〉

- ① 산상왕이 제사에 쓸 돼지를 찾는 과정에서 시골 여인과 결합하여 동천왕이 태어났다.
- ② 동천왕은 의붓어머니 우씨의 행패를 모두 받아줄 정도로 관인한 인품이다.
- ③ 관구검이 침입하였을 때 유유 등의 충절로 적을 격퇴하였다.

〈해동만고가〉 제18-21면.

위의 산상왕에 대한 기록 가운데 ④와 ⑤는 『삼국사기』 동천왕 4년 조에 기록되어 있고, 동천왕에 대한 기록 가운데 ①은 『삼국사기』 산상왕 12년 조에 기록되어 있다. ①④⑤에서 『삼국사기』의 “산상왕 → 동천왕”이라는 서술순서가 〈해동만고가〉에서는 “동천왕 → 산상

왕”으로 바뀐 것이다. 서술순서를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 산상왕에 대한 것은 『삼국사기』에 다른 왕의 조목에 있더라도 산상왕조로 집약하고, 동천왕에 대한 것은 『삼국사기』에 다른 왕의 조목에 있더라도 동천왕조로 집약하고 있다. 이러한 집약은 독자들이 하여금 역사적 정보를 좀더 쉽게 수용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한 수용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제왕의 덕목이라는 교훈성을 좀더 집약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둘째 〈해동만고가〉에는 특정 사실을 생략하여 작자의 의도를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고구려 유리왕·대무신왕에 대한 기록, 백제 무왕에 대한 기록, 신라 진평왕에 대한 기록에서 보인다.

고구려 유리왕은 태자 鮮明이 이웃나라 임금인 黃龍王이 보낸 강궁을 꺾어 버리자 칼을 보내어 자결하게 한다. 『삼국사기』의 史論에서는 태자 解明¹⁶⁾이 부모의 곁을 떠나 好勇으로 방탕한 생활을 한 점과 유리왕이 의로서 자식을 가르치지 않고 그 결과만 미워하여 자식을 죽인 점을 모두 비판하고 있다.¹⁷⁾ 이에 비하여 〈해동만고가〉에는 “義教를 못하야니 止慈情을 알너냐”(12면)라고 하여 유리왕의 不仁한 점만 비판하고 있다. 고구려 대무신왕이 호동왕자를 죽게 한 것에 대하여 『삼국사기』의 史論에서는 大武神王의 不仁함과 호동왕자의 소근함을 모두 비판하고 있다.¹⁸⁾ 〈해동만고가〉에서는 호동왕자에 대한 비판적 사론을 생략하고, 대무신왕의 不仁함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호동왕자에 대하여 “어엿불샤 好童이여 너는 어이 죽었느니/ 容貌도 奇特하고 大功도 있다마는/ 猜忌하는 어피허물 봄히기 어려웨라/ 晉文公이 도타마는 申生을 비홀주리”(15면)라고 하였다. 작자는 호동왕자가 자신이 변명하면 어미의 허물이 드러날까 하여 변명하지 않고 자결한 것으로 해석하여 그 행위에 동정하고 있다. 백제 무왕의 경우 『삼국사기』에는 즉위 초에서 재위 35년까지 신라의 진평왕, 선덕여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등 善治가 드러나며 왕의 방탕한 생활에 대한 기록은 재위 36년-37년 사이의 몇 년간이다. 〈해동만고가〉는 무왕의 방탕한 생활만이 서술되어 있다. 신라 진평왕에 대하여 『삼국사기』에는 재위 53년 5월에 반란이 일어난 사실이 있다. 〈해동만고가〉에는 진평왕 대의 사적이 상당히 확장되어 있는데 반란의 사적은 생략되고 주로 문물의 정비, 국토확장, 다수의 忠義士에 대한 것만 서술된다. 이것은 백제는 방탕한 왕, 신라는 현철한 왕과 문물의 번성, 충절의 신하가 있는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 〈해동만고가〉에는 『삼국사기』 史論의 일부분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를 통

16) 〈해동만고가〉에는 鮮明으로 되어 있으나, 『삼국사기』에는 解明으로 되어 있다.

17) “論曰 孝子之事親也 當不離左右以致孝 若文王之爲世子 解明在於別都 以好勇聞 其於得罪也宜矣 又聞之傳曰 愛子教之以義方 弗納於邪 今王始未嘗教之 及其惡成 疾之已甚 殺之而後已”(『삼국사기』 권13 琉璃明王 28년).

18) 論曰 今王信讒言 殺無辜之愛子 其不仁 不足道矣 而好童不得無罪何則 子之見責於其父也 宜若舜之於瞽瞍……好童不知出於此 而死非其所 可謂執於小謹 而昧於大義 其公子申生之讐耶(『三國史記』卷14 大武神王 15年).

하여 왕의 不仁함과 신라의 문화적 우월성이 부각된다.

셋째 『삼국사기』 소재에 작자의 주관의 첨가된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고구려 온달에 대한 이야기와 우륵의 가야금에 대한 이야기이다. 온달에 대한 이야기는 『삼국사기』에서는 온달과 평강공주의 사랑, 온달의 충절이 중심 내용이다. <해동만고>에서는 충절이라는 면보다 사랑이라는 면이 부각되고, 온달에 대한 부정적인 일면이 드러난다. 온달의 죽음에 대하여 『삼국사기』에서는 온달이 죽은 이후 관이 움직이지 않고 평강공주가 왔을 때 관이 움직이게 되어 실지 회복을 위한 온달의 충절과 평강공주와의 사랑이 부각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해동만고>에서는 이러한 기록이 생략 축약되어 있고, “知足을 못 하던가 國恩을 갑자던가/ 漢北의 일흔 사흘 隣國에 초조라고/ 三千兵 홀니노하 鷄立峴을 넘어갈 제/ 죽기로 盟誓 하니 壯氣난 잇다마는/ 功業을 못낼우고 冤魂이 되어세라”(34면)라고 하였다. 온달이 권세를 지니고 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공을 세우기 위하여 신라를 침입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결국 온달 이야기에서 <해동만고>에서는 『삼국사기』에 있는 이야기에 작자의 주관을 첨가하여 온달의 충절을 약화시키고 있다.

우륵의 가야금 전래와 현금의 유래에 대하여 <해동만고>에는 『삼국사기』 樂志의 기록과 『삼국사기』 본기의 기록이 복합되어 있다. 이는 신라 국력의 흥기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서술순서를 바꾸어 집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현금의 유래에 대한 내용이 『삼국사기』의 기록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해동만고>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구절은 “晋人の 七絃琴이 高句麗를 다녀오니/ 王山岳이 주려내야 五音을 가초들 제/ 玄鶴이 춤을 추어 九嶠에서 넘노는 듯”(28면)이다. 진나라에서 칠현금이 고구려에 전해지고 이것을 연주할 사람이 없다가 왕산악이 연주하게 된다. 왕산악이 연주하니 현금이 춤을 추어 “玄琴”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현금은 ‘옥보고-속명득-귀금선생-(윤홍)극상·극중’의 순서로 전승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삼국사기』 樂志 玄琴 조의 기록과 일치한다. 단지, 『삼국사기』에서는 왕산악이 고구려 사람이고 옥보고 이하는 신라 사람이다. <해동만고>에서 위 인용구절은 “고구려를 지내와서(건너 뛰어) 왕산악에게 전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해동만고>의 한문 주석에서는 “진나라 사람이 칠현금을 고구려에 보내니 고구려 사람은 알지 못하여 신라에 보낸다. 왕산악이 그것을 알아 오음으로 연주하니 현금이 날아와 춤을 추니 현금이라고 칭한다. 왕산악이 옥보고에게 전하였다(晋人送七絃琴於高句麗 麗人不知 送於新羅 王山岳解之 奏以五音 玄鶴來舞謂之玄鶴琴 今稱玄琴 王山岳傳之玉寶高)”라고 하였다. 고구려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신라의 왕산악이 연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왕산악이 고구려인에서 신라인으로 변개되었다. 이상 첨가에 의한 변개를 통하여 고구려의 충신에 대한 충절의 약화, 신라 문물의 흥기라는 내용이 부각된다. 이는 삼국 가운데 신라가 정통이라는 작가의 의식이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해동만고가〉에서는 『삼국사기』의 서술방식이 바뀌기도 한다. 訥催는 진평왕 대의 인물로 봉잡성의 성주로 있을 때 백제군을 침입을 받는다. 진평왕은 오군을 인솔하여 구원하러 갔다가 백제군의 예봉을 당할 수 없어 철수한다. 눌최는 구원병이 철수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병사를 독려하며 분전하다가 전사한다. 〈해동만고가〉에서 이 부분은 다음 구절과 같다.

五將軍을 흉기 내야 百濟兵을 막을 적의/ 峰岑城 彈丸中에 烈丈夫는 訥崔로다/ 忠膽을 못 니
괴어 慷慨하고 니러나니/ 九天을 7로칠 제 말삼도 슬플시고/ 陽春이 方和 홀제 草木이다 피거
니/ 歲寒 松柏은 푸르니 제 혼자라/ 盡節 揚名은 烈士의 혼 날이니/ 一片 孤城에 忠魂이 되어세
라

〈해동만고가〉 29-30면

신라와 백제의 전쟁이 발발한 경위, 진평왕이 구원하러 갔다가 피치 못하여 철수한 사실, 눌최의 행동 등이 생략되고 눌최의 말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 〈열전〉의 눌최조에 있는 눌최의 말은 “양춘화기에는 초목이 다 빛나지만 제한이 되어서는 송백이 홀로 있다가 나중에 퇴색하는 것이다. 지금 외로운 성에 구원이 없고 날로 위급해지니 이 때야 말로 지사가 절개를 다하여 이름을 떨칠 때이다. 너희들은 어찌하겠는가?(陽春和氣 草木皆華 至於歲寒 獨松柏後彫 今孤城無援 日益陷危 此誠志士夫盡節揚名之秋 汝等將若之何)”¹⁹⁾로 병사들을 청자로 한 대화체에 가깝다. 이에 비하여 〈해동만고가〉에서는 “너희들은 어찌하겠는가?(汝等將若之何)”라는 구절을 생략하여 독백으로 처리하고, “지금 외로운 성에 구원이 없고 날로 위급해지니(今孤城無援 日益陷危)”라는 구절도 생략되어 원망의 의미도 없다. 눌최의 말은 충절을 집약한 것이고 〈해동만고가〉에서 이를 독백으로 처리함으로써 눌최의 결의를 드러내 그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해동만고가〉에서 『삼국사기』의 서술과 다른 방식으로 기록된 부분은 뜰계자, 설씨녀, 김후직, 기칠부, 백결선생에 대한 이야기이다. 『삼국사기』에서는 설명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해동만고가〉에서는 대화체 또는 독백체로 그 서술방식이 변개되어 있다. 이는 이들 소재가 주로 忠節, 節義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술방식의 변개는 忠節이라는 교훈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 소재의 변개에 나타난 교훈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동만고가〉에서 소재 변개는 서술순서의 변개, 생략에 의한 변개, 첨가에 의한 변개, 서술방식의 변개로 나타난다. 서술순서의 변개는 한 소재에 대한 집약을 의도한 것으로 독자에 대한 배려이고, 첨가에 의한 변개는 仁慈(不仁)이란 교훈과 신라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첨가에 의한 변개는 신라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서술방식의 변개는 忠節이란 교훈을 강화하

19) 『삼국사기』 권47 열전 제7 訥催.

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보아 〈해동만고가〉에 나타난 소재 변개에 의한 교훈성은 왕의 仁慈(不仁)와 신하의 忠節(倫綱)이다.

4. 결론

본고는 〈해동만고가〉에 대한 필사시기에 대한 시비와 그 문학적 의미에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하였다. 필사시기에 대한 것은 국어학적인 성과를 이용하였고, 문학적 의미는 ‘교훈성’이란 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동만고가〉의 필사시기에 대한 것이다. 〈해동만고가〉의 필사시기는 합용병서의 표기와 의문문의 표기에서는 17세기 이전이 되고, 분철 표기에서는 17세기 이후가 된다. 17세기 이전으로 단정하기에는 후대의 표기법이 나온다는 점에서 주저된다. 17세기 이후의 어느 시기에 필사된 것으로 보이는데 합용병서와 의문문의 표기가 17세기 이전의 표기법을 따른 점을 감안하면 17세기 초반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해동만고가〉의 교훈성에 대한 것이다. 삼국시대에서 고려말까지의 역사에서 〈해동만고가〉에 선택된 소재들은 왕의 도리, 왕위 계승, 신하의 도리라는 세 가지 항목이 중심이다. 이 가운데 왕의 도리는 賢明(淫蕩) 仁慈(不仁)란 덕목이 왕위 계승은 天命(不義)이라는 덕목이 신하의 도리는 倫綱이란 덕목이 강조된다. 결국 소재의 선택은 왕의 賢明과 仁慈, 신하의 忠節, 왕위계승의 天命이란 교훈을 나타낸다. 〈해동만고가〉에서 소재 변개는 서술순서의 변개, 생략에 의한 변개, 첨가에 의한 변개, 서술방식의 변개로 이루어진다. 서술순서의 변개는 한 소재에 대한 집약을 의도한 것이고, 첨가에 의한 변개는 仁慈(不仁)란 교훈과 신라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첨가에 의한 변개는 신라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서술방식의 변개는 忠節이란 교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해동만고가〉에 나타난 소재 변개는 왕의 仁慈(不仁), 신하의 忠節(倫綱)을 강화한다. 이를 보아 〈해동만고가〉에 나타난 교훈은 왕의 賢明과 仁慈라는 도리와 신하의 忠節(倫綱)이라는 도리, 왕위계승의 天命인데 중심 교훈은 왕의 賢明과 仁慈라는 도리와 신하의 忠節(倫綱)이라는 도리로 볼 수 있다.

본고는 〈해동만고가〉 한편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 문학사적 의미를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문학사적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선후기 양산되기 시작한 영사가사와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후고로 미룬다.

〈참고문헌〉

1. 자료

〈海東萬古歌〉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2. 연구논저

姜銓燮(1987), 「동국역대가의 작가모색」, 『동방학지』, 54·55·56합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9), 「양곡 陳復昌의 역대가 모색」, 『동방학지』 62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權寧徹(1989), 『규방가사 각론』, 형설출판사.

김문기(1978), 「海東萬古歌에 대하여」, 『文脈』 6집,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

김성규(1996), 「중세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1』, 국립국어연구원.

박병채(1998), 『국어발달사』, 세영사, 145면.

안병희, 이광호 공저(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이기문(1982), 『국어음운사연구』, 탑출판사.

이기문(1998),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鄭在鎬(1966), 「역대가류고」, 『어문논집』 1집, 고려대학교 국문과, 1966.

——(1983), 「역대전리가의 진위고」, 『동방학지』 36·37합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3.

최동주(1996), 「중세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1』, 국립국어연구원.

최두식(1987), 『한국영사문학연구』, 태학사.